

기후위기는 마음의 위기다

- 생태적 지혜를 통한 전환의 상상력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이사장 신승철

들어가며 : 마음, 사회, 자연의 위기를 목도하며

기후위기는 단지 기온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시해 왔던 삶과 생활양식 전반을 뒤흔들 최대변수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상의 불편함과 소외, 빈곤, 불평등 등과 깊게 관련되어 왔다. 우리의 문명 내부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인간 군상들이 여전히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발과 성장에 목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처럼 잘 살지 못할 것이며 자괴감과 비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동적 전환 상태에 머물 것이다. 반면 능동적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탈성장 전환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모은다면, 우리 자신이 당연시해오던 모든 것들을 의문에 부치고, 더욱 불편함으로 향하는 의도적 계도화를 수행하는 대안적인 행동과 실천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는 인류문명 전체를 파멸에 이르지도 못할 기후위기 상황을 거대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완전히 모든 것을 거대한 문제설정 앞에 거는 목숨을 건 도약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문명이 갖고 있는 사회부정의와 불평등, 착취, 차별 등 각각의 문제 상황들을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의 변수 아래 상수로 놓아야 하고 이들 문제 상황들을 문명 전반의 전환에 걸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대담해져야 한다. 우리는 희망보다는 결사와 행동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환 자체도 마케팅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전환 자체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체계 전반을 의문시하고 이를 급변시킬 뾰족한 것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전환을 늦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쓸래야 쓸 수 없는 저항적 개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린워싱의 재미에 사로잡혀 말로만 전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불운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자신에게 불리해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대적인 기후결사, 기후행동의 불운한 요소가 전환에는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위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저 과학기술이 말하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이 그 자체로 해결책조차도 갖고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정동을 발휘하여 어떻게 전환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설정과 마주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음, 사회, 자연은 전환을 이룰 생태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구성요소를 파열시키는 위기의 작동과 양상을 진단하면서 어떻게 이를 넘어서 세 가지 생태학의 실천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해 봐야 할 것이다.

마음생태 : 기후위기는 마음의 위기다

마음의 생태학에는 잡다, 다양, 여럿이 응성거리고 잡음, 소음, 잉여를 형성하지만, 이는 곧 조화와 균형의 일관성을 갖게 된다. 만약 “‘**꿈쩍 안할 때**’와 ‘**움직일 때**’ 중에서 언제 마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어젯밤 옆치락뒤치락 거렸던 잠자리를 생각할 것이다. 단잠을 청하지 못했던 어젯밤의 잡념과 예민함, 환상 등을 생각하며 ‘**꿈쩍 안할 때의 마음**’이 더 많았노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꿈쩍 안 할 때의 마음**’은 바로 감정과 정서이다. 어떤 표상이 촉발하는 자기원인과 일관성도 없는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마음들이다. 불교에서의 소승(小乘)의 수련법인 명상은 이러한 잡념들을 텅 비우고 번뇌를 던져버리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진공상태로서의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방법이지만, 여전히 ‘**꿈쩍 안할 때의 생각**’의 프레임(frame)에 머물러 있다. 반면 ‘**움직일 때의 마음**’인 정동은 보살피고 아끼고 행동하고 이행하고 움직일 때의 마음이다. 삶의 내재성 즉 배치가 분명히 있는 마음들이다. 불교에서의 대승(大乘)의 돌봄과 살림으로서의 보살행(菩薩行)이나 보시(報施)개념은 정동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인 서원(誓願)의 방법이다. 불교에서의 서원은 정동의 미시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뛰어드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의미한다. 반면 해탈과 열반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소승불교의 전통이다. 이렇듯 ‘**꿈쩍 안할 때의 마음**’과 ‘**움직일 때의 마음**’은 불교뿐 아니라, 정동과 감정을 가르는 커다란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마음이 **꿈쩍 안할 때의 마음**의 위기인지, **움직일 때의 마음**의 위기인지를 살펴본다면, **꿈쩍 안할 때의 마음**은 위기에 사로잡혀 찢찢 매지만, **움직일 때의 마음**은 더욱 활력과 생명력을 발휘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움직일 때의 마음은 사실상 세 가지 마음의 좌표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하나는 **넓이의 마음**으로 사물, 자연, 생명, 기계와 혼종적인 주체성 양상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양상이다. 다시 말해 해러웨이의 말처럼 인간은 대지 위에서는 것이 아니라, 대지 밑에서 꾸물거리는 존재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상황에서 서 있다. 두 번째는 **높이의 마음**으로 의미와 가치에 따라 생명력을 발휘하는 결사와 결단의 마음이다. 빅터 플랭클이 얘기했던 로고테라피의 말처럼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것처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깊이의 마음**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밑바닥 감정으로 침윤하다가 되 튀어오르는 놀라운 주체성 생산의 순간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존의 전략성에 대한 부분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분자혁명을 규명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래아식의 대공정의 밑바닥 마음의 깊이도 타진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은 이러한 세 가지 좌표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혼재면을 형성하지만, 이네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명평화의 일관성으로 향할 수 있다.

결국 마음의 위기는 **높이, 깊이, 넓이**에서 유래된 마음들이 어떻게 잘 배열, 정돈, 배치, 정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동(affect)과 돌봄의 생명력과 활력에 따라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대한 마음을 세워두고 이에 따라 효율성을 획

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모델이라는 다양한 마음을 연결하는 이음새로서의 정동을 통해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음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생태 : 기후위기는 상상력의 위기다

기후위기 상황은 선택의 경우의 수를 상실하게 만든다. 궁색하고 주저하고 난처하다. 이는 상상력을 고갈시키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상상력의 위기로도 표상된다. 이러한 상상력의 빈곤은 미래진행형적 사유와 가능성의 선택지 등을 상실하게 한다. 미래는 상상력이 아니라, 김홍중 교수 얘기처럼 파멸 이후의 상상력인 파상력에 머무르게 된다. 일단 파멸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생태적 한계 아래에서 얼어붙는다. 이를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논리적 장부기재’라고 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 말했던 것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개념, 상징, 표상 등은 유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야기구조의 설립과정에서의 소재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장부기재와 같이 생태적 한계를 명확히 한다면 하나하나한 이야기를 하고 그칠 소지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생태학은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는 생태적 다양성의 다이내믹 시스템을 짜고 있으며, 각각의 특이점으로서의 생명, 자연, 사물, 기계 등이 어우러져 회복탄력성, 복원력, 신축성, 유연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제설정에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설정의 비스듬한 결합과 횡단성이 탄력적으로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물 대량 멸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이점으로서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설립하는 특이성 생산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특이화라고 해야 엄밀할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재설정되고 재발견되고 재발명된 특이점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설립한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어우러진 탄력적이고 다이내믹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경우의 수는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경우의 수를 창안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일 수도 있고, 생활양식의 심원한 변화일 수도 있다. 동시에 생태계는 인간, 사물, 자연, 기계, 생명 등이 어우러져 각각의 혼재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역학적 시스템이다. 여기서 강한 상호작용은 혼종적인 주체성으로 하여금 더욱 풍부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차이를 낳는 차이’로서의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약한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주변부를 소외와 무위로 만들고 중심부에 센터를 두게 된다. 결국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의 경우의 수들이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혼종적 주체성으로서의 인간-기계, 인간-미생물, 인간-생명 등이 얼마나 세계를 재창조하고 재특이화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상상력 자체의 위기를 돌파할 특이성 생산과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이루냐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사회생태 : 기후위기는 인문학의 위기다

근세 초기 인문학은 르네상스 시기 동안 인간을 자연과 사물,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사교적이고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이를 이어받은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에는 신 중심의 초월적인(transcendental) 논의로부터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선형적인(transcendent)의 논의로 바꾸면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의 기본 구도를 그려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회는 미리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곧 사회의 성숙으로 간다는 헤겔(Hegel)의 변증법(Dialectic)논의로 진행된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미리 주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은 사회의 와해와 해체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 3세계에서의 기후난민의 현현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는 몸이 털이 자라듯 저절로 치유되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발생성과 자기치유력의 신화인 자연주의는 생태주의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같이 인간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는 인간사회의 치유력과 성숙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인간사회 자체를 전환하고 바꾸어나가는 구성적 과제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인륜성, 사교성, 사회성, 시민성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으며, 기후난민과 제 3세계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결국 자신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는 인문학의 위기인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찬찬히 사색해 본 사람은 그것이 분명 과학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이야기구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인류세와 같이 인류의 절멸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인문학의 탈을 쓰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문학의 이야기구조는 보다 급진적이고 혁신적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과 사회를 형성하고 구성해야 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00+10=110”이라는 함수론의 역치로서의 “110이 다시 100+10이 되려면”이라는 질문의 확률론인 사실처럼, 자본주의라는 함수론과 사회주의라는 집합론을 넘어서는 대안은 확률론적인 회복탄력성과 재귀론적인 순환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입구와 해결의 출구는 다르며 “~은 ~이다”라는 의미화에 따라 문제해결의 단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나~이거나” 등으로 다양한 지도화를 통해서 메타모델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면한 인문학은 수많은 이야기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면서도 지도 그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는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이 아니며, 모순과 대립은 사회분열과 와해, 기후난민의 발생으로 귀결된다. 사회적인 것이 미리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문학은 끊임 없이 구성적인 과제를 가질 것이다. 정동과 활력, 생명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것을 재건하고 구성할 것인가가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일 것이다. 많은 콘텐츠가 흥미 있고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좌표와 미래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탈성장 전환사회로 향하자고, 따뜻하게 인도할 인문학적 이야기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전환이 갖고 있는 이야기구조를 인문학은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삶의 양식에 심원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오며 : 세 가지 생태학을 통해 전환을 말하다!

기후위기 상황이 초래한 마음, 사회, 자연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사회, 자연의 세 가지 생태학이 갖고 있는 풍부한 생태적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생태적 지혜는 생태적 다양성이 갖고 있는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사물, 인간, 자연, 기계, 생명이 어우러진 혼종적인 주체성이 발휘하는 예술작품과도 같다. 우리는 지혜와 정동의 구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생태계와 함께 우리 자신의 나아갈 바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지혜와 정동을 통해서 구성하고 창안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소멸하는 페이소스보다 지혜와 정동을 발휘했던 수많은 살림꾼들의 노력과 움직임, 활력과 힘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혜와 정동의 여러 갈래의 길을 구성하고 개척할 것이다. 우리의 놀라운 기후행동은 여기서 시작된다.